

지역 소식통

부안군의회, 임시회 개최

부안군의회가 9일 제320회 임시회를 개최해 오는 18일까지 10일간의 본격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는 11일 위도면을 시작으로 읍·면 현황청취를 실시하고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자생식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9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오창환 의원과 김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백산대회 격문 낭독 건의안과 4차 재난지원금 농어민 지원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오창환 의원은 정부 공식 기념행사인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에서 백산격문이 낭독돼 혁명의 의미가 뚜렷하게 전달되기를 건의했고 김경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매년 제외돼 온 농어민이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찬기 부안군의회 의장은 "코로나19 3차 유행의 마지막 고비를 넘기 위해 백산 절충을 시작한 만큼 모든 행정력을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해 달라"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부안을 만들어 가는 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13개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정읍시 13개 작은도서관이 올해 12월까지 재미와 교육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동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 계층을 대상으로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과 독서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다채로운 강좌로 구성했다. 유아와 초등생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독서 습관을 형성해 폭넓은 독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부릉부릉 동화 나라'와 '북아트 활용 교육' 등의 강좌를 마련했다. 또, '프라모델 조립하기'와 '펠트 공예' 등의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국가예산 확보 총력 “안심하고 자전거 타세요”

유기상 군수, 기획재정부 등 5개 중앙부처 방문 ‘노을대교 건립’ 등 지역 현안 해결 협조 요청

고창군이 중앙부처를 찾아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등 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발품땀을 흘리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9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를 방문해 ▲고창-부안(노을대교) 국도건설 ▲제3차 연안정비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2022년 국가예산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유기상 군수는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과 강대현 타당성심사

과장과 면담하고 ‘노을대교 건립’ 필요성을 설명했다.

유 군수는 “국책사업인 새만금 내부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고, 고창-부안 해상풍력단지 본격 조성 등 물류이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통시 연간 물류비 절감 효과가 1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등 경제성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안전부 조성한 지역균형발전과정을 만나 공음 보전, 심원 도청 위원회로 구조개선사업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6억원을 요청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해양수산부 김규섭 항만연안재생과장을 만난 자리에서 상하명 명사십리해리면 사반리 연안해변의 천연사구 보전을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위해 제3차 연안정비계획 우선순위 반영과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 농림축산부와 환경부 등을 방문해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하수관로 및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등의 부처 예산 반영을 부탁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현안사업을 해결하겠다”며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모든 군민의 삶이 행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시, 시민 전체 대상 자전거 보험 자동가입

정읍시는 올해도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홍보에 나섰다.

시는 자전거 인프라 확충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생활 동참으로 자전거 이용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전라북도 최초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아 왔다.

올해도 3월 8일부터 내년 3월 7일까지 1년간 계약을 체결해 자전거 이용에 따른 불의의 사고 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이거나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에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 피해를 본 경우 해

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자전거 안전 문화 정착과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해 자전거 안전모 구입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자전거를 소유하고 자전거 타기 생활화에 참여할 정읍시민이면 누구나(기존 신청자 제외) 신청할 수 있다.

가입 금액의 50%(최대 3만 원)를 지원하며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유진섭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교통 혼잡 줄이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험 가입 등 시민들이 자전거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사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샘고을시장, 농축산물 소비 촉진 쿠폰 ‘호응’

전년도 대비 매출 2배 기록

정읍시는 지난 설 명절을 맞아 샘고을시장(상인회장 고광호)에서 시행된 ‘농축산물 소비 촉진 쿠폰 사업’이 많은 소비자의 호응 속에 엄청난 매출을 기록하며 대박 성공을 거뒀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소비 촉진 쿠폰 사업’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도움을 주고 매출 감소로 침체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전국 9개 시장 중 도내에서 유일하게 샘고을시장이 대상지로 선정되어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19일간 행사를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행사 기간 샘고을시장 내 농축산물 판매실적이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늘어 시장 상인의 소득이 크게 향상됐다.

또, 소비 쿠폰(페이백)을 통해 소비자의 가계지출 부담도 줄어드는 윈-윈



정읍시는 지난 5일 소비쿠폰의 성공적인 추진을 이끈 샘고을시장 고광호 상인회장과 김옥실 총무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win-win)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이끈 샘고을시장 고광호 상인회장과 김옥실 총무에게 지난 5일 감사패를 전달했다.

유진섭 시장은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구매 기회를 제공해 준 상인회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아산면 인천강 경관지구, 유채개화 사전점검

고창군 아산면(면장 이성수)이 강화문 경관보전추진위원회와 단지장, 유채꽃 재배 전문가와 함께 아산면 봉덕리 등 5개 유채꽃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아산면은 인천강 일원에 140ha 규모로 유채를 파종해 경관단지를 만들었

다. 지난해 10월부터 마을추진위원회와 단지장 및 농가들이 합심해 봄 유채꽃 재배 전문가와 함께 아산면 봉덕리 등 5개 유채꽃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올 2월까지 이어진 잦은 한파와 강설로 가을에 파종한 유채의 작황이 좋지 않은 일부 구

역에 대해선 재파종해 단지 전체가 골고루 개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했다.

이성수 아산면장은 “인천강 경관지구를 만들어 유채 파종부터 재배까지 농업인들이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봄을 알리는 화사한 유채꽃이 인천강 일대에 만발할 그 날까지 행정과 주민들이 합심하여 생육과 개화에 힘쓰자”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높을고창 쌀 시식회 ‘윤기있고 밥맛 최고’

고창군청 안에 구수한 향기가 가득했다. 구내식당 앞에는 긴 줄이 섰다. 참기름을 두른 듯 한 윤기 있는 밥알들이 한 움큼 주걱으로 올려지며 밥그릇에 담겨진다.

최근 ‘식은밥도 맛있는 쌀’, ‘퇴근을 앞당기는 쌀’ 등 소비자를 열렬한 후기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높을고창 쌀’이 고창군청 구내식당에서 시식회를 열었다.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소개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한 자리였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식판에 놓인 찬이머 국까지 싹 비워냈다. 50대 과장은 “윤기가 자르르 한 것이 식욕을 자극한다”며 “첫술 딱 넘자마자 밥알이 낱알이 살아 있음이 느껴졌다”고 만족스런 표정을 지었다. 30대 직원은

“누룽지도 맛있을 것 같다”며 조리실을 기웃거리 웃음을 선사했다.

쌀의 품종은 밥맛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다. 품종에 따라 밥의 부드러움과 딱딱한 정도, 찰지고 고슬고슬한 정도가 달라진다. 단백질 함량과 아밀로스 함량이 품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높을고창 쌀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밥쌀용 최고품질인 ‘수광벼’ 품종으로 고창 한결농조합법인(대표 박종대)에서 생산하고 있다.

특히 높을고창 쌀은 친환경 인증, 특품의 출하등급, 단백질 함량 6%이하의 우수한 품질기준과 전용 저온창고 보관, 출하직전 1주일 이내에 도정된 것만을 유통해 신선도 유지에 신경을 썼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청은 구내식당에서 높을고창 쌀 시식회를 하고 있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